

'26. 7. 3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 중부사령부, 시리아서 IS 고위 지도자 사살..“잔존 세력 완전히 제거”
 - 6.25 외신은 美 중부사령부가 지난 19일 시리아 북서부를 공습하여 IS 고위 지도자 ‘알리 후세인 알 올라위’를 사살했으며, 알샤라 시리아 정권과 공조하며 IS 잔존세력 소탕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美 중부사령부 「브래드 쿠퍼」 사령관은 향후 美 본토와 장병 및 동맹국 보호를 위해 IS조직의 완전한 제거에 전념하고 있다고 부언
- 美, 분쟁해결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통채널 구축
 - 6.26 언론은 미군과 테러단체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카타르 도하에서 직접 만나 갈등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, 양측의 직접 소통이 성사될 경우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

유 럽

- 튀르키예 경찰, 나토 회의 앞둔 앙카라서 IS 조직원 사살
 - 6.25 언론은 튀르키예 경찰이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, 수도 앙카라 외곽에 있는 IS 대원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1명을 사살하고 그의 부인을 체포했다고 보도
 - ※ 당국은 나토 회의 전후로 경계 태세를 최고로 격상하고 정상회의 장소, 각국 대표 이동경로 등 중요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 부언
- 모나코, 주거용 건물에서 폭발물 테러 발생
 - 6.30 언론은 모나코 시내의 한 주거용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부상 당했다며, 경찰은 한 용의자가 해당 건물 로비에 물체를 놓고 간 뒤 폭발이 발생했으며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보도

※ 당국은 폭발물에 볼트와 산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모나코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부언

○ 독일, 양육권 갈등에 앙심...총기난사로 6명 사망

- 6.30 언론은 독일의 청소년 보호 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, 다수가 다쳤다고 하며 용의자는 모두 시설의 직원이고 용의자는 튀르키예계 독일 국적 남성으로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었다고 보도

※ 독일은 총기난사 사건이 드물지만 '23년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6명 사망, '16년 18세 독일계 이란인 남성이 9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 부언

아·태

○ 수원지법, KT·카카오 폭파 협박 10대들...1심서 징역형·벌금형

- 6.24 언론은 대통령을 사칭하며 KT와 카카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하며 A군은 장기 2년·단기 1년의 징역형을, B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

※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KT사옥, 카카오, 토스뱅크,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

○ 서울시, 신당동 아파트 단지서 훈련용 포탄이...

- 6.24 언론은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포탄이 발견되어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추가적인 사고는 없었다 보도

※ 발견된 물체는 군에서 사용하는 연습 및 훈련용 교보재 포탄으로 경찰은 어떤 경위로 아파트 내에 방치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부언

○ 韓, 서울 동아일보 사옥서 칼부림...인화성 물질도 발견

- 6.26 언론은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에서 70대 계열사 관계자가 직장 갈등 끝에 前 직원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인화성 물질을 남기고

도주했으며, 경찰이 용의자의 행방과 범행 경위를 추적 중이라고 보도

○ 인도, “BRICS” 테러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촉구

- 6.27 외신은 인도에서 열린 제16차 브릭스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을 검토하고,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회원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다졌다고 보도
- ※ “회복력, 혁신, 협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축”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, 테러 집단의 신기술 등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부언

○ 韓, 국가기술표준원 대드론 체계 성능시험 국가표준 제정

- 6.28 언론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대드론 체계의 구성장비 성능을 평가하는 「KSW8100,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」을 제정 및 고시해 국가중요시설의 무인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보도
- ※ 표준은 주요 탐지장비·식별장비와(레이더, RF스캐너 등) 무력화장비(전파방해, 스푸핑 등 소프트킬 기술)에 대해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부언

○ 파키스탄, 카라치서 무장대원 테러공격...교전 끝 8명 사망

- 6.28 언론은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파키스탄탈레반(TTP) 분파인 「자마트-울-아흐라르(JuA)」가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돌진한 뒤 총격전을 벌여 무장대원 5명이 사살, 국경경비대원 3명이 숨졌다 보도
- ※ '24.10월 카라치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이후 가장 큰 공격이며, 북부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TTP와 분파 조직들의 공격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부언

아프리카

○ 서부르키나파소 군사 정부, 식민 종주국 프랑스와 단교

- 6.27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'26년 6월 26일을 기해 프랑스와 외교 단절을 결정, 이는 지난 '22년 9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부로 서방 국가와 특히 프랑스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보도
- ※ 부르키나파소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JNIM과 ISSP에 대해 맞서고 있으며, 同 단체는 말리와 니제르까지 활동하고 있다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튀르키예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테러

- '16. 6. 28, 21:30경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 공항*에서 테러범 3명이 난입하여 총기 ·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, 45명(범인 3명 포함)이 사망·230여명 부상



* 초대 대통령인 「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」의 이름을 붙인 튀르키예 최대 국제공항(연간 6,000만명 이상 이용)

- 테러범 2명은 공항 출입국장에서 총기를 난사 후 몸에 지니고 있던 폭발물로 자살, 다른 1명은 제2터미널 내부에서 자살 폭탄 공격



- 테러 배후와 관련 ISIS 등 테러단체들의 소행임을 자처하지 않았으나, 튀르키예 정부는 ISIS 지도부가 공격에 관여했다 보도
- 튀르키예 정부는 6월 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ISIS와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스탄불 내 16곳을 급습하여 22명을 구금

테러 상식

<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발생한 주요 테러사례 >

- '03. 11. 15.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유대교 회당·영국 총영사관·HSBC본사 대상 연쇄 폭탄테러로 60여명의 사망자와 340여명의 부상자 발생
- '16. 1. 12. ISIS가 술탄아흐메트 광장에 관광객 대상 자살폭탄테러로 10명의 사망자와 15명의 부상자 발생
- '16. 3. 19. ISIS와 연계된 단체가 이스탄불 베이롤류의 이스티크랄 거리에 자살폭탄테러로 5명의 사망자와 36여명의 부상자 발생
- '16. 6. 7. 쿠르드족(PKK)가 이스탄불 파티프에서 경찰대상 버스폭탄테러로 11명이 사망하고 36명의 부상자 발생
- '16. 12. 10. 쿠르드 자유 매파(TAK)가 이스탄불 축구 경기장 인근에서 차량 폭발 및 자살폭탄테러로 48명의 사망자와 166명의 부상자 발생
- '22. 11. 13. 쿠르드족(PKK)가 이스탄불 번화가 이스티클랄 거리에 폭탄테러로 6명이 사망하고 81명의 부상자 발생